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6715.41	↑ 코스닥	822.18
	(-2.56)		(+6.20)
↑ 금리 (한국은행)	4.063	↑ 환율 (환율)	1383.35
	(+0.010)		(+14.75)

‘4% 금리’ 美… 추가 긴축 가능성 韓, 연내 세번째 금리인상 무게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은행도 지난 7·8월 연속 인상에서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이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의 점도표는 연내 추가 인상과 2027년 말까지 4%대 금리를 가리켰다.

케빈 위시 연준 의장이 현재 금융여건을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완화적 요소를 일부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일회성 인상 기대도 후퇴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FOMC는 지난 15~16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p 인상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된 경제전망요약

연준, 3년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
점도표 18개 중 16개 ‘추가 인상’
한미 기준금리 격차 1.0%p로 확대
환율·시장 고금리, 통화정책 영향

(SEP)과 점도표, 위시 의장의 기자회견은 연준의 긴축이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 18명 중 16명 추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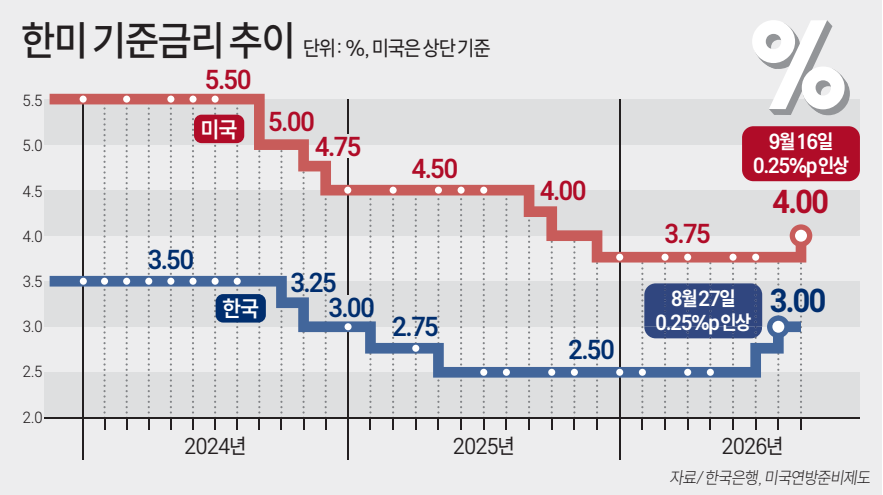
점도표를 제출한 참석자 18명 가운데 16명은 올해 안에 금리를 최소 0.25%p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12명은 한 차례, 4명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고 2명은 현 수준 유지를 점쳤다. 위시 의장은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금리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다.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지난 6월 전망치인 3.8%보다 0.3%p 높아졌다. 2027년 말 전망도 3.6%에서 4.1%로 0.5%p 뛰었다. 내년 말까지 현재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전망도 추가 긴축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로 낮췄다. 반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은 3.6%에서 3.7%, 근원 PCE 물가는 3.3%에서 3.4%로 올랐다. 성장과 고용은 예상보다 강하지만 물가 둔화 속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PCE 물가가 목표치인 2.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됐다.

정책결정문의 변화도 매파적(통화 긴축 정책 선호)이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이 에너지 등 일부 부문의 공급 충격에 기인한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이번 정책 조치는 2% 목표로 보다 적시에 복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공급 충격을 물가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명시했던 설명을 빼고 광범위한 물가압력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기초적 물가 흐름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금융여건을 긴축적이라고 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위원회에서 폭넓게 공유됐다”며 “이에 완화적 요소를 일부 제거했다”고 말했다.

◆ 유가 내려도 미 금리·달려 ↑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은 이번 회의를 매파적으로 평가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3.6% 하락했는데도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7bp(1bp=0.01%포인트) 오른 4.74%, 10년물은 2bp 상승한 5.02%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0.7%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 내렸다.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10월 추가 인상 확률도 40.2%에서 53.1%로 높아졌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

리(3.0%)와 미국 금리 상단의 격차는 1.0%p로 확대됐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더 올리고 한은이 동결하면 격차는 1.25%p까지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만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고금리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은도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해 금리 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권만수 한은 부총재는 “위시 의장의 물가안정 의지 강조 및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국민소득 ‘45세’ 정점 찍고 61세부터 ‘적자 인생’ 전환

데이터처, 2024 국민이전계정
2010년 적자 전환 56세, 5년 줄어

우리 국민은 소득의 정점을 45세에 찍는다. 소득은 이후 60세까지 15년간 점차 줄어든다. 61세부터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적자 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10여 년 전보다 5년쯤 늦춰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소득(정부의 지원)과 사적이전소득(가족의 지원)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출생 후 27세까지 적자 인생을 살다가 28세부터는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은 흑자 인생으로 전환됐다. 이 흑자 인생은 60세까지 지속됐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 규모에 앞서며 적자로 돌아섰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불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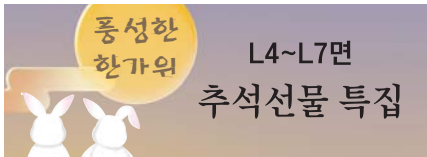
1인당 소비는 16세에서 46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노동소득은 45세에 4651만 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8세의 생애주기 흑

자 규모는 2023년 206만 원에서 2024년 157만 원으로 23%가량 감소했다. 반면 45세의 흑자 규모는 1745만 원에서 1932만 원으로 10.7% 확대됐다. 61세 때의 적자 규모는 214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64.4% 줄었다. 28세 때의 흑자 감소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64세 노동연령층은 2024년 소비 1059조8000억 원, 노동소득 1214조9000억 원으로 155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18조7000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0~14세 유년층은 186조2000억 원, 65세 이상 노년층은 188조9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노년층 적자는 2023년보다 9조6000억 원 불어났다.

14년 전인 2010년 국민의 적자 재진입 연령은 56세였다. 이후 2024년에 61세로 5년 늦춰졌다. 흑자 기간도 29년에서 33년으로 늘었다.



도쿄게임쇼2026 시작을 알리는 커팅식.

/최빛나 기자

글로벌 게임산업 허브 ‘도쿄게임쇼 2026’ 개막

30주년 맞아 ‘역대 최대규모’ 진행
53개 국가·지역, 1138개 기업 참여

일본 최대 게임 전시회 ‘도쿄게임쇼 2026(TGS 2026)’이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TGS는 행사 기간을 처음으로 닷새로 늘리고 해외 기업과 인디게임,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게임산업의 ‘허브’로 변화를 시도한다.

17일 오전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는 개막 직후부터 전시장 곳곳에서는 신작을 직접 체험하려는 업계 관계자와 미디어

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데이, 19일부터 21일까지는 일반관람객이 입장하는 퍼블릭 데일로 운영된다.

올해 TGS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확장’이다. 사단법인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세계 53개 국가·지역에서 1138개 기업 단체가 참가했다. 지난해 1136개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기업이 540개사, 해외 기업은 598개사다. 전체 부스도 3999개에 달한다.

전체 참가 기업 가운데 해외 기업이 일본 기업들을 웃도는 것은 일본 콘솔게임 신작

을 공개하는 무대라는 기존 TGS의 색깔에 더해 세계 각국 개발사와 퍼블리셔, 투자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업 전시회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 기능도 확대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 구역에는 251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177개사와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단순히 신작을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전시회를 넘어 퍼블리싱과 투자, 판권 계약 등 기업 간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의 비중이 커진 셈이다.

〈3면에 계속〉

/도쿄(일본)=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李 시켰을 것…국민과 헤어질 결심” /사진 뉴시스
▲국힘 이인선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바람직하지 않다”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李 공소취소 선전포고…범죄수사 누더기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韓·美,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16~17일 실시
▲진보 4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 결의안 통과시키자…與 동참 촉구”